

醫協, 17일 휴진강행

정부의 파업금지 명령 어겨 파장클 듯

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전국 2만 1000여개 의원 가운데 70% 이상이 오는 17일 하루 휴진키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의협이 휴진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파업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어서 향후 지도부 사법처리 등의 갈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朱秀虎) 의협 공보이사는 14일 "정부가 의약분업 재검토와 조정(醫政) 협의회 구성 등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 예정대로 총파업(휴진)을 하기로 했다"며 "2만 1000여개 의원 중 최소 70~80%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휴진 당일 오전에는 시도별 집회를 갖고, 오후에는 탈동네 등에서 무료 진료나 학교에서 무료 건강검진 등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휴진에는 병원협회와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불참키로 결정해 응급환자들은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의 휴진에 대

비,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전화1339번)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진료기관 안내와 응급처치 상담 등을 해주고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종합병원과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진료시간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全東燮기자 dskim@chosun.com

어제 강릉 30도 전국 초여름 날씨

14일 강릉지방의 수온수가 섭씨 30도를 나타내 올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기상청은 이날 강릉 30도를 비롯, 대구 27.6도, 춘천 27.3도, 대전 26.5도, 서울 23.5도, 광주 23.4도, 제주 22.9도, 인천 22.5도 등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6~12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다. /崔元碩기자 ws-choi@chosun.com

오늘날씨

전국이 차차 흐려져 한두 차례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 12~18도, 낮 최고 18~28도.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2~5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서해상으로부터 점차 낮아진다.

지역별 날씨

인천	서울	춘천	강릉	동해
15/20	15/19	13/21	18/28	
대전	광주	대구	포항	
17/23	16/20	14/23	16/23	
전주	제주	창원	부산	
17/23	17/21	15/19	15/18	

비율확률

오전	오후
80	20
60	40
40	60
20	80

날씨 이야기

기후 온난화, 황사 등으로 어수선한 때, 다시 봄철 독감이 유행이란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1~3일의 잠복기를 거쳐 열, 두통, 근육통, 마른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인플루엔자가 계속 변형되기 때문에, 한번 걸린 뒤에도 걸리는 '불상사'도 가능하다는 것. 특히 영·유아나 노인에게는 치명적이다. /崔元碩기자 ws-choi@chosun.com

주간날씨

16일(수)	17일(목)	18일(목)	19일(금)	20일(금)	21일(토)
서울	10/16	11/15	5/19	5/20	8/22
경기	10/16	11/15	5/19	5/20	8/22
충청	10/17	10/18	6/20	8/22	10/24
강원	10/17	10/18	6/20	8/22	10/24
충청	9/17	6/16	5/19	6/20	8/22
대전	9/17	6/16	5/19	6/20	8/22
호남	10/17	8/18	7/20	7/21	9/19
광주	10/17	8/18	7/20	7/21	9/19
영남	13/16	12/18	10/19	10/19	9/20
부산	13/16	12/18	10/19	10/19	9/20
제주	14/19	12/17	11/16	11/16	12/18
제주	14/19	12/17	11/16	11/16	12/18

세계의 날씨

LA	11/18
뉴욕	12/22
토론토	7/15
런던	2/12
파리	3/13
로마	5/14
모스크바	0/16
북경	9/20
홍콩	21/27
타이베이	22/31
호놀룰루	21/27
도쿄	13/20

기상안내 : 국번없이 131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본관 앞에 모인 유병화 총장(가운데)과 동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생들. /全基炳기자 gibong@chosun.com

아시아秀才 키우는 '산속 로스쿨'

경기도 고양 '국제법률경영대학원'

그럼이 아주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학을 세운 이는 외교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교수와 학장을 지낸 유병화(柳炳華·56) 총장. 그는 "아시아의 지도자를 키워 통합된 유럽처럼 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96년 전제산 30억 원을 털어 4만평 부지를 샀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건물 인·허가와 진입로 개설 문제로 시청과 구청을 뛰어다녀야 했다. 신축 자금은 더 막막했다. 하지만 어느 날, 행운이 찾아왔다. 학습보조제품을 만드는 ㈜대양이앤씨가 그의 뜻에 감동했다며 후원자로 나섰다. 한 해 2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는 최고위과정 운영, 기업 연수와 초·중·고생 영어캠프 유치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내후년엔 미국 워싱턴DC 근교에 로스쿨을 건립해 연계교육에도 나설 계획. 오는 9월에 입학할 2기생도 이미 선발됐다. 20명을 뽑는 중국에서는 우수 학생이 100명 넘게 몰렸다고 한다. /梁根晚기자 yangkm@chosun.com

구과발에서 문산 방향으로 20분쯤 차로 달렸을까,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이란 안내판이 있다. 새길을 따라 5분쯤 가니 산 중턱에 앉은 새 건물이 보인다. 1층 강의실, 계약법을 강의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과 없는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 판례가 거론되며, 재미 변호사 출신인 스티븐 최 교수가 남녀 학생들이 묻고 답한다. 미국 로스쿨에서 보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수업'. 모두들 영어가 유창하다. 최(37)교수는 "눈이 반짝거릴 정도로 열의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석사과정 전문대학(대학원대학)으로 작년 9월 문을 연 이 학교 학생은 한국인이 아니다. 첫 입학생 40명 가운데 한국인은 2명뿐이고, 38명이 아시아 각국에서 왔다. 중국 북경대와 정법대, 베트남 하노이대, 필리핀 아테네오 데 마닐라 로스쿨, 인도네시아대, 미얀마 양곤대 등 명문대 법대를 상위 5%

변호사 출신들이 강의를 맡았다. 북경대 법대를 졸업한 린후진(24)씨는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부해 배울 점이 많다"고 했다. 하노이대 법대를 나와 강사로 일하다 온 구엔 디프(27)씨는 "국회에서 지역협력 분야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곳 프

삼척~영덕~포항 171km '동해 중부선' 2005년 착공

삼척부터 포항까지 바다를 건 171km 구간의 '동해중부선'이 깔린다. 이 단선(單線) 철도를 따라 임원·울진·평해·영덕·청하·흥해 등 6개 역이 들어선다.〈그림〉올해 이미 설계에 착수했다. 실제 착공은 2006년, 완공은 2014년으로 예정됐다. 철도청은 그 뒤 필요하면 근덕·죽변·후포·강구 등 12개 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중부선은 기존의 동해남부선(부산~포항)과 영동선(삼척~강릉)을 연결한다. 또 최근 남북이 추진키로 협의한 동해북부선(강릉~북한 영진리)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李忠一기자 cilee@chosun.com



www.freesam.com

우린 인터넷 모의고사로 실력까지 확인한다!

4월 22일-4월 24일 빨간펜 전국 인터넷 모의고사 실시!

빨간펜 온라인 서비스 프리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모의고사로 실력을 확인하고 성적에 맞춘 효율적인 학습관리로 한 발 앞서가십시오.

전국 인터넷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학년별 및 눈속 회원
 방법 - 빨간펜 홈페이지 프리샘(www.freesam.com) 접속
 시기 - 4월 22일~24일 (4월 이후는 격일 마지막 주 실시)
 과목 - 초등 3~6학년: 국어, 수학 / 중등 1~3학년: 국어, 수학, 영어

실력 확인은 물론 푸짐한 혜택도 함께 챙겨주세요.

- 응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실용 컴퓨터 1대 워터민 20대 레고 게임 CD 1,200장

- 성적 우수자 초등 40명, 중등 30명에게 전집 상품 1점씩을 드립니다. 『자연의 신비』, 『과학의 신비』, 『문학의 신비』, 『영웅의 신비』, 『영웅의 역사』, 『사건조사기』, 『동』
- 성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목별, 총점별 전국 석차를 제공받아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